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최민정 (글로벌에스디지임팩트협회 사무국장)*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이 경영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는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조정 활동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고, 경영성과에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중 고용조정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중 재무관리와 마케팅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연구개발과 고용조정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마케팅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재무관리와 고용조정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초기창업기업, 도약기업, 성장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일하게 마케팅 활동만 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코로나19, 위험인식, 경영활동,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조정, 경영성과, 재무적성과, 비재무적성과

1. 서론

2019년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 창업가들과 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을 주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초기 대응은 곧 기업의 생존과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의 위기관리 활동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지선·최성락, 2014). 하지만 많은 위기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기업의 위기관리는 말처럼 쉽지 않다(Coombs, 1999). 기업이 위기관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건·사고 발생 시 해당 위기 수준에 대한 신속한 인식, 위기 상황의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대응, 위기 유형별로 특화된 대응 전략 등이 필요하다(Coombs, 2004; Cleeren et al., 2013; Mitroff & Anagnos, 2001). 위기에 대한 기업의 차별화된 전략은 기업의 다양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기회로 때로는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한다. 적절한 위기 대응 전략은 기업의 수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기여하는 기회가 된다(Mitroff & Anagnos, 2001). 반면에, 부적절한 위기 대응은 수익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기업과 협력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자, 기업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Coombs, 1999). 따라서 기업의 위기관리 활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성격이 띤다(박근완 외, 2019).

그렇다면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 왜 어떤 기업은 위기 대응에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실패할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어떤 기업들은 실패하고 문을 닫았지만 어떤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우리는 창업가 또는 기업 대표의 위험인식에 중점을 두고,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획된행동이론 관점에서 인식은 의지를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행동을 형성한다(Ajzen, 1991). 그렇다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가 또는 기업가의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주도하고, 특정 행동을 유발할 것이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영활동에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성과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그중에서도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

* 주저자, 글로벌에스디지임팩트협회, 사무국장, mjchoi1003@hanmail.net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lih2114@cau.ac.kr

· 투고일: 2023-09-10 · 1차 수정일: 2023-10-18 · 2차 수정일: 2023-10-22 · 게재확정일: 2023-10-27

조정 활동과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가와 기업가의 위험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팬데믹 시기에는 어떠한 경영활동이 유용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험인식은 위험성향과 함께 창업 성공의 중요한 동력이지만(Lumpkin & Dess, 1996; Sitkin & Pablo, 1992) 상대적으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Randerso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인식과 관련하여 빠진 구멍을 채워주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업가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사스와 메르스를 거쳐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며 바이러스가 인류와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목격하였다. 코로나19의 변종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도전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류를 한 번에 날려버릴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잠재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경영활동,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I. 이론적 배경

2.1. 코로나19 위험인식

위험은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인 요소들의 영향으로 형성된 개인의 주관적인 정의이고(Slovic, 2000), 위험인식은 특정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그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해석된다(김지미 외, 2021).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위험에 대한 평가가 일반인보다 더 정확하다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인식은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차용진, 2006). 이러한 이유로 등장한 심리측정 패러다임은 개인마다 다른 위험인식의 수용가능성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위험인식 구조 정보를 이해하여 위험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김지미 외, 2021). 위험인식 연구에서 심리측정에 근거한 접근법은 Slovic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접근법은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과 감염병, 에이즈 등의 사회재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험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차용진, 2014).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였다.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공식적으로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지정하였다(김용범 외, 2021). 코로나19처럼 신종 감염병은 그 위험이 잘 알려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치명적일 것이라는 위험인식과 두려움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신종플루와 관련된 위험이 치명적이고 두렵다고 인식할수록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반면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손애리·한숙정, 2020).

한편, 창업연구에서 위험인식에 대한 의사 결정자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는 비즈니스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Sitkin & Pablo, 1992). 실제로 기업가가 기회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기회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Dana & Dana, 2005). 창업 연구에서 위험성향과 위험인식은 종종 창업 성공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위험인식은 위험 감수의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Lumpkin & Dess, 1996; Sitkin & Pablo, 1992).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Randerson et al., 2016). 마찬가지로 기업가의 위험 태도가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분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위험 성향만을 고려하고, 보완적 개념인 위험인식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Boermans & Willebrands, 2017).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위험인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잘 연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Sitkin & Weingart(1995)는 높은 위험인식이 기업가의 위험 결정을 줄이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많은 연구에서 기업의 성과를 설명할 때 위험 성향과 위험인식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Dana, 1995; Gibcus et al., 2009; Kraus et al., 2012; Sitkin & Pablo, 1992; Willebrands et al., 2012).

2.2. 경영활동

경기침체, 금융위기,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위기로 인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과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대응 활동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재무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시장환경에 더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한 영업과 마케팅, 인력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고용조정 등의 활동에서 두드러진다(Doern et al., 2019; Smallbone et al., 2012; Williams et al., 2017). 이러한 위기 대응 전략들은 기업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2.1. 재무관리

효과적인 재무관리는 비즈니스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이다. 기업의 재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회사의 미션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자금을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관

리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지만 최적의 결과를 위해 조화롭게 조율되어야 하는 상호 의존적인 프로세스를 거친다. 효과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조직은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계획, 예산편성, 예측, 모니터링 등은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주요 요소이다. 철저한 기획과 재정 성과의 밀접한 모니터링 등은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다(Sitinjak et al., 2023).

재무관리라는 용어는 현재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는데, 자원의 형성, 분배 및 활용을 통해 기업의 목표와 자산의 규모·구조 등을 일치시키는 것이 재무관리의 주요 측면이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재정 모델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 관련된 프로세스의 집합이다. 재무관리는 경제 주체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재무관리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재산에 즉시 영향을 미친다(Sitinjak et al., 2023).

재무관리는 경영의 여러 기능 중 하나지만 소규모 기업의 성공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Meredith, 1986). McMahon et al.(1993)은 재무관리가 기업의 자산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제한된 자금을 필요한 용도에 적절히 분배하여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무관리 관점에서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 역량은 고위험과 불확실한 환경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기업가들은 생산, 서비스 또는 마케팅 기능을 우선시하여 창업 초기 단계 재무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많은 경우에서 사업의 실패로 이어진다(Jindrichovska, 2013). 이에 López et al.(2012)은 많은 실패 요인이 조직의 성장 목표를 주도하는 전략과 재무 결정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기창업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나 방법이 더욱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적 금융 지원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회사들에 매우 선호되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현재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제도적인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기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은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이 은행 및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자금조달 방법에는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 소위 모험자본의 투자가 있지만 심지어 벤처기업조차도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준, 2017).

초기창업기업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하면 적시에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노동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Mondy et al., 1999).

2.2.2. 연구개발

비즈니스 분야에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은 기업과 기관의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 기존 기술 개선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하지만 본디 연구개발은 기본 연구, 응용 연구, 개발 활동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로서 지식의 증가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과 그러한 지식의 활용을 의미한다. 오늘날 연구개발의 개념은 혁신 활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연구개발은 기본 연구부터 제품의 성공적인 마케팅이나 새로운 공정의 효과적인 개시까지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Kainulainen, 2014). Kennedy & Thirlwall(1972)은 연구(Research)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활동이고, 개발(Development)이란 이러한 연구결과나 과학적 지식을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으로 실제 구현하고 완성하는 기술적인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연구와 개발은 기업이나 조직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기업성과의 주요 결정적 요인은 적절한 유형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있다. 특히, 가치 있고 희귀하며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기업일수록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Barney, 1991). 이 관점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의 지식 자산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은 혁신을 창출하고, 지식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Somaya et al., 2007). 기업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표준지침은 없지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결국 꾸준한 연구개발일 것이다.

Schumpeter(1950)는 경기침체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발동시켜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기존 산업이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다. 따라서 경기침체 기간에도 충분한 기회가 존재하지만 혼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기업이 이를 포착하고 적용하기 어렵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경기침체와 같은 위기에서도 기업은 연구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이 미래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Freel(2000)은 연구개발 활동 자체가 조직의 탐구적인 태도를 유도하여 새로운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인 적응 능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위기 기간에도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초기창업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고(김희준, 2017), 작은 규모와 제한된 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 어렵다(Graham et

al., 2009).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업은 지식재산이 기술의 가치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이점을 제공한다. 자금조달이 유리한 초기창업기업은 확보한 자금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재투자하기 쉽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기업에 선순환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주게 된다(Long, 2002). 이는 창업 초기부터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2.3. 마케팅

마케팅의 정의는 학회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마케팅 협회가 2017년에 승인한 정의에 의하면 마케팅이란 고객, 클라이언트, 파트너 및 사회 전체에 가치 있는 제안을 창조·전달·소통·교환하기 위한 활동, 제도, 과정이다(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2017). 한국마케팅학회는 마케팅을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교환을 유도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한국마케팅학회 편집부, 2002). Kotler & Keller(2006)는 마케팅을 개인과 그룹이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사회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마케팅 활동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연구 중 하나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마케팅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Aaker & Jacobson, 1994).

Slater & Olson(2001)은 마케팅 활동을 크게 STP(Segmentation-Targeting-Positioning)와 4P(Product, Price, Promotion, Place)로 구분하고, 이를 더 세부적으로 시장조사, 고객 세분화와 타겟 설정, 제품라인 확장, 제품혁신, 제품 품질, 고객서비스, 프리미엄 가격 전략, 유통채널 선택, 광고, 내부 판매인력, 프로모션 과정 등을 포함하는 지원 요소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체계는 너무 기능적인 측면과 특정 대상에만 집중하여 마케팅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Vorhies & Morgan(2005)은 마케팅 역량으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품개발, 가격책정, 유통채널 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판매, 판매관리 계획 및 통제 체계, 시장 정보 관리,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활동은 고객과 기업에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통합되면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와 향상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제품개발은 고객의 요구와 선호도를 충족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가격책정은 수익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고객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유통채널 관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업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2.2.4. 고용조정

고용조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늘리거나 줄이는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만 경영 관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상당한 규모의 고용 감축을 의미한다(홍민기, 2013). 실제로 고용조정으로 번역되는 영단어는 대폭적인 인원 감축으로 풀이되는 'Downsizing'이다. 기업의 고용조정(Downsizing)은 조직이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을 축소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비유구조와 업무 흐름까지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Freeman & Cameron, 1993). 고용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신규 채용 중단, 간접고용 활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업무공유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조치도 고용조정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홍민기, 2013).

고용노동부(1997)는 고용조정을 수량적 조정, 기능적 조정, 임금 조정, 기업조직의 재구축 등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수량적 고용조정이란 생산량 변화나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변할 때, 외부에서는 인력 수를 적절히 조정하고, 내부에서는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고용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외부에서는 신규 채용 조절이나 해고, 명예퇴직 유도, 내부에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연월차 휴가 권장 등의 근로시간 조절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적 고용조정이란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업무를 맡도록 하거나 노동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임금 조정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임금상승을 완화, 비임금 노동비용 삭감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기업조직의 재구축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하청이나 외주공급 확대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며, 분사, 소사장제, 사업부제, 팀제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우리나라 고용 변화는 휴직 기반의 노동시간 조정과 고용률 하락에 기반한 조정이 동반되어 나타났으며, 1997년이나 2008년 경제위기에 비해 휴직률 상승을 통한 노동시간의 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21).

고용조정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학자마다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고용조정이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조직구조를 단순화하여 신속한 고객 응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의사결정, 종업원 참여 확대, 제품개발 주기 단축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기업은 고용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업원을 내보내고, 조직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Cameron et al., 1991; Hendricks, 1992; Neinstedt, 1989).

2.3. 경영성과

일반적으로 경영성과는 주로 기업성과 또는 사업성과라고도 불리며, 기업의 생산과 수익, 조직의 목표 달성 수준, 기업의 내외부 조직역량 등과 같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Strandskov, 2006). Kaplan & Norton(1996)은 경영성과를 기업이 수립한 전략의 의도에 따라 실제로 실행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Tanriverdi(2005)는 경영성과가 기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궁극적인 판단 척도이자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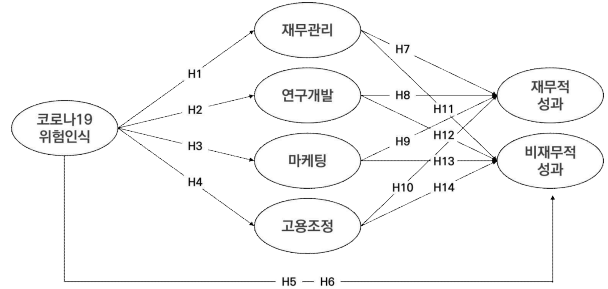
경영성과의 평가는 주로 재무지표인 매출액, 이익율, 투자수익율, 시장 점유율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재무적 평가는 사후적인 측정 방법인 동시에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도 고려하는 복합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Stock et al., 2000).

일반적으로 비재무적 성과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결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표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외부 환경,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그 측정 범위가 넓고, 단기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점들이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며, 장기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도 적합하여 재무적 성과의 한계를 보완한다(Hult et al., 2004).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에서 판단할 수 없는 질적인 지표로 고객의 인지도 증가, 고객만족도 개선 정도, 지식재산권 보유, 브랜드 인지도 증가 등이 포함된다. Kaplan & Norton(1996)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고려하여 경영성과를 평가하도록 BSC(Balanced Scorecard)를 제시하였다. 재무적 성과에는 투자수익률,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의 등을 포함하고, 비재무 성과에는 성장률, 고객만족도, 학습과 성장, 내부적 측정치 등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재무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측정의 지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III.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인식 수준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위험인식을 독립변수로,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조정을 매개변수로,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과 나이, 학력, 창업경험, 부모직업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변수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가설설정

3.2.1.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경영활동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이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고용조정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시기 창업가, 기업가들이 인식하는 위험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Palich & Bagby, 1995), 이에 따라 기업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많은 연구에서 기업의 성과를 설명할 때 위험인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ana, 1995; Gibcus et al., 2009; Kraus et al., 2012; Sitkin & Pablo, 1992; Willebrands et al., 2012). 위험인식은 위험 감수 행동의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Lumpkin & Dess, 1996; Sitkin & Pablo, 1992). 위험인식은 상황의 위험을 판단하는 의사 결정자의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의사 결정자가 상황에 내재된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인식 과정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Sitkin & Pablo, 1992). Wijaya & Rahmayanti(2023)는 발리의 관광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중소기업 관리자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살펴볼 때, 사람들의 인식이나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의지를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형성한다(Ajzen, 1991). 따라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코로나19 위험인식은 그들의 위험 감수 행동, 예컨대 그들의 다양한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침체, 금융위기,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활동은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조정 등의 활동에서 두드러진다(Doern et al., 2019; Smallbone et al., 2012; Williams et al., 2017). 그러므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코로나19 위험인식은 그들의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조정 등의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재무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연구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코로나19 위협인식은 마케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코로나19 위협인식은 고용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코로나19 위협인식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코로나19 위협인식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경영활동과 성과

적시적기 기업의 적절한 전략과 활동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무관리는 경제 주체의 균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재무관리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즉시 기업의 재정 상태와 재산에 영향을 미친다(Sitinjak et al., 2023).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원과 고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하기때문에 재무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자금조달과 같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적 재무 계획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radag, 2015). Mondy et al.(1999)은 초기창업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면 다양한 경영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자금조달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고객만족도를 높여 브랜드의 제품 인지도와 브랜드 자체 인지도를 향상시킨다(Cretu & Brodie, 2007; Rao & Monroe, 1989).

Koyuncugil & Ozgulbas(2006)는 이스탄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9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무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재무성과도 낮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역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화·조근태(2012)는 R&D 연구소를 보유한 민간기업 118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투자는 기술 사업화성과,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의 경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Lome et al.(2016)은 247개의 노르웨이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 기업이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 동안 다른 기업들보다 현저하게 성과가 뛰어났음을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일반적인 성장 기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위기 상황에서 연구개발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케팅 활동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마케팅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Aaker & Jacobson, 1994). Conchar et al.(2005)은 15개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88개의 광고효과 분석모형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광고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현금흐름, 영업이익 등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광고 투자 등의 마케팅 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케팅 활동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다. 가격, 영업사원 등의 마케팅 요소는 제품 품질 인지도(Rao & Monroe, 1989)와 브랜드 인지도(Bendixen et al., 2004; Kuhn et al., 2008) 등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고용조정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은 엇갈리는 편이다. 하지만 고용조정은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조직구조를 단순화하여 신속한 고객 응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의사결정, 종업원 참여 확대, 제품개발 주기 단축과 같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일부 학자들은 고용조정이 경쟁력이 낮은 종업원을 내보내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Cameron et al., 1991; Hendricks, 1992; Neinstedt, 1989).

Espahbodi et al.(2000)은 1989년과 1993년 사이 고용조정을 실시한 118개 기업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고용조정 이후 영업성과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증명하였다. Yu & Park(2006)은 1997년과 2002년 사이 한국기업 258개를 대상으로 6년간 중단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이 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재무관리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연구개발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마케팅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고용조정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재무관리 활동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연구개발 활동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마케팅 활동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고용조정 활동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구성

코로나19 위협인식은 차용진(2014), 김대엽(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측정접근을 적용한 차용진(2014) 연구설계에서 본 연구의 상황에 맞다고 판단되는 위협성, 통제성, 두려움과 관련된 문항을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활용하였다. 조작적 정의는 그들의 연구에 따라 상황에 내재한 위협의 양에 대한 위협성, 통제성, 두려움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중 재무관리는 Kazanjian(1988)이 제시한 문항을 McMahan et al.(1993)의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활용하였다. McMahan et al.(1993)은 재무관리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확보된 한정적인 자금을 다수의 중요한 경영활동에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조정하여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재무관리의 조작적 정의는 그들의 연구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연구개발 활동은 Yam et al.(2004)과 박용필(2015)이 제시한 문항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Yam et al.(2004)은 기업의 혁신 과정에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연구개발을 크게 연구개발 집약도와 인력비율의 관점에서 정의하는데, 이는 비용과 인력수를 포함하는 양적 개념이다. 박용필(2015)은 연구의 대상이 중소기업일 경우 양적 개념보다는 정성적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의 조작적 정의를 Yam et al.(2004)과 박용필(2015)의 연구에 따라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자원의 정도와 인력을 구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행위의 정성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마케팅 활동은 Vorhies & Morgan(2005)과 박해근(2018)이 제시한 문항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조작적 정의는 그들의 연구에 따라 목표시장을 세분화하여 마케팅 믹스와 결합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고용조정 활동은 고용노동부(1997)에서 제시한 내용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고용노동부(1997)에 따르면 수량적 고용조정이란 노동수요의 변화에 따라 노동투입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해고, 명예퇴직 등과 같이 근로자의 수를 조절하거나 근로시간 축소,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월차 휴가 권장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조정의 조작적 정의는 해당 연구에 따라 해고, 명예퇴직, 근로시간 축소,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과 같은 수량적 고용조정으로 정의하였다.

경영성과에서 재무적 성과 문항은 Kaplan & Norton(1996)과 김승기(2020)가 연구한 내용을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조작적 정의는 주요 경쟁자와 비교하여 매출, 수익성, 현금흐름 등의 실적에서 우수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비재무적 성과 문항은 Kaplan & Norton(1996), 김성일·이우진(2016), 장성희 외(2014)의 연구를 본 연구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였고, 조작적 정의는 고객증가, 인지도 증가, 개발역량 향상, 지식재산권 보유 등의 실적에서 우수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수		선행연구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창업 경험, 부모의 창업 여부, 회사 설립 기간, 소재지, 업종, 고용 규모	-	9
	독립변수	코로나19 위협인식	차용진(2014), 김대엽(2017)
매개변수	재무관리	McMahan et al.(1993), Kazanjian(1988)	5
	연구개발	Yam et al.(2004), 박용필(2015)	5
	마케팅	Vorhies & Morgan(2005), 박해근(2018)	5
	고용조정	고용노동부(1997)	4
종속변수	재무성과	Kaplan & Norton(1996), 김승기(2020)	3
	비재무성과	Kaplan & Norton(1996), 김성일·이우진(2016), 장성희 외(2014)	5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가와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설문의 대상은 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 도약기업(3~7년), 성장기업(7년 이상)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이는 기간별 위기 대응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설문기간은 2020년 10월 6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였으며, 총 160부를 회수하여 불성실 응답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15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양한 통계기법들 가운데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과 SmartPLS는 측정모형과 더불어 구조모형도 함께 측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초기 단계의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서문식 외, 2012; Fornell & Bookstein, 1982). 또한, SmartPLS는 상관계수를 최대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협인식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영활동이 매개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4를 이용하

여 병렬다중매개효과(Parallel Multiple Mediation Effect)를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표본 크기에 비해 모형이 복잡한 경우, 측정변수만으로 이를 분석할 수 있고, SPSS 프로그램에서 매개분석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어 유용하다(Chew et al., 2017; Hayes, 2017).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재추출하는 표본의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으며, SPSS 18.0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IV.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자 70.3%, 여자 29.7%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30대 39.2%, 40대 32.3%, 50대 19.6%, 20대 5.1%, 60대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경험 유무는 경험자가 53.8%, 비경험자가 46.2%로 나타났다. 부모의 창업경험은 없다가 60.8%로 나타났으며, 회사설립기간은 7년 이상이 22.8%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인천권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은 예술·엔터테인먼트·레저가 15.2%로 가장 높았다. 고용 규모 분포를 살펴보면 2~5명이 34.8%, 6~10명이 24.1%, 11~20명이 13.9%, 21~50명이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특성

변수	요소	빈도수(n=158)	비율(%)
성별	남성	111	70.3
	여성	47	29.7
연령	20대	8	5.1
	30대	62	39.2
	40대	51	32.3
	50대	31	19.6
학력	60대	6	3.8
	고졸 이하	7	4.4
	전문대재학	5	3.2
	전문대졸업	39	24.7
	대학교재학	10	6.3
	대학교졸업	63	39.9
	대학원(석박사)재학	3	1.9
대학원졸업(석박사)	31	19.6	
창업 경험	0회	73	46.2
	1회	58	36.7
	2회	17	10.7
	3회	5	3.2
부모의 창업 여부	4회이상	5	3.2
	있다	62	39.2
	없다	96	60.8

회사 설립 기간	1년미만	13	8.2
	1년~2년 미만	24	15.2
	2년~3년 미만	23	14.6
	3년~4년 미만	30	19.0
	4년~5년 미만	13	8.2
	5년~6년 미만	12	7.6
	6년~7년 미만	7	4.4
사업장 소재지	7년 이상	36	22.8
	서울권	9	5.7
	경기·인천권	52	32.9
	강원권	45	28.5
	경상권	38	24.0
	충청권	3	1.9
업종	제주권	11	7.0
	석유 및 화학·플라스틱	2	1.3
	펄프·인쇄·가구	5	3.1
	철강·기계·조선	20	12.6
	자동차·운송장비	2	1.3
	전자·통신	14	8.8
	반도체	2	1.3
	제약·바이오·의료	12	7.6
	식품	4	2.5
	섬유·의류·가죽	2	1.3
	물류·유통·도소매	11	7.0
	금융·보험	3	1.9
	전력·건설	17	10.8
	교육·컨설팅 서비스	6	3.8
예술·엔터테인먼트·레저	24	15.2	
고용 규모	그 외 제조업	22	13.9
	그 외 서비스	12	7.6
	1인기업	12	7.6
	2~5명	55	34.8
	6~10명	38	24.1
	11~20명	22	13.9
	21~50명	17	10.8
51명 이상	14	8.8	

4.2. 측정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대부분 연구에서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사용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합성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등을 사용하여 검증한다(Fomell & Larcker, 1981). 합성신뢰도는 측정변수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평가이고,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표준화된 합의 제곱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나눈 값이며, 0.7 이상이 평가기준이다. 평균분산추출은 구성개념에 대하여 측정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이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한 값들의 합을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과 오차분산의 합으로 나

는 값이다. 0.5 이상이 평가기준이다. 또한, 판별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Fornell & Larcker, 1981).

<표 3>과 같이 측정모형에서 각 차원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0.5 이상이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6-0.95 사이에 있고(0.7 이상이 바람직함),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text{-값}/CR(\text{Critical Ratio}) > 1.965, p < 0.05$)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Fornell & Larcker, 1981). <표 3>에서 t-값은 부트스트랩핑(표본 수 500)을 실행하여 나온 결과 값들이다.

<표 4> 측정모형의 경우,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 행렬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수 값이 0.559이며, 재무관리와 마케팅의 상관관계수의 제곱인 $(0.559)^2 = 0.312$ 보다 재무관리의 AVE(0.517)와 마케팅의 AVE(0.761)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rcker, 1981).

4.3.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PLS는 내생변수 설명력을 최대화하고,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AMOS나 LISREL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한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지 않는다(Vinzi et al., 2010).

구조모형 전반적 적합도는 모든 내생변수 R² 평균의 제곱근과 AVE 평균의 제곱근의 곱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상(0.36 이상), 중(0.25-0.36), 하(0.10-0.25) 세 단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342로 GoF의 평가기준 값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토대로 구조모형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여 각각의 연구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Cotterman & Senn(1992)에 의하면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PLS algorithm을 통해 나온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과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경로계수 t-값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5>에 정리 요약하였다.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증이기에 때문에,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t| > 1.645$ 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우종필, 2012).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위험인식은 고용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t=6.763$, 가설 4), 재무적 성

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t=4.211$, 가설 5), 비재무적 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t=3.490$, 가설 6). 다음으로 재무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t=4.388$, 가설 7), 마케팅도 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2.781$, 가설 9). 연구개발은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t=4.026$, 가설 12), 마케팅도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t=4.039$, 가설 13).

추가적으로 초기창업기업($n=60$), 도약기업($n=55$), 성장기업($n=43$)으로 분류하여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초기창업기업($n=60$)의 경우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재무적 성과($t=4.028$, 가설 5)와 비재무적 성과($t=3.491$, 가설 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재무관리는 재무적 성과($t=2.666$, 가설 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개발($t=4.651$, 가설 12)과 마케팅($t=1.784$, 가설 13)은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도약기업($n=55$)의 경우 코로나19 위험인식은 연구개발($t=1.913$, 가설 2), 재무적 성과($t=4.157$, 가설 5)와 비재무적 성과($t=2.182$, 가설 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조정($t=4.014$, 가설 4)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케팅은 재무적 성과($t=2.875$, 가설 9)와 비재무적 성과($t=2.308$, 가설 1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성장기업($n=55$)의 경우 코로나19 위험인식은 고용조정($t=2.298$, 가설 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재무관리는 재무적 성과($t=4.464$, 가설 7)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케팅은 비재무적 성과($t=3.148$, 가설 1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4.4. 매개효과 분석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영활동 4개 변인(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고용조정)의 병렬다중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는 병렬다중 매개모형 내 모든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 10>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위험인식은 고용조정($B=.337,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나, 고용조정은 경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무관리는 경영성과($B=.192, p<.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마케팅도 경영성과($B=.319,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준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의 t-값 및 신뢰성 지수

잠재변수	측정항목	요인부하량	t-값	Cronbach α	rho_A	C.R.	AVE
코로나19 위험인식	Kobid1	0.822	22.582	0.891	0.904	0.920	0.698
	Kobid2	0.846	30.625				
	Kobid3	0.875	43.183				
	Kobid4	0.738	14.633				
	Kobid5	0.888	38.327				
재무관리	Finance1	0.778	14.799	0.770	0.786	0.840	0.517
	Finance2	0.634	8.255				
	Finance3	0.565	3.807				
	Finance4	0.787	11.284				
	Finance5	0.798	15.34				
연구개발	R&D1	0.833	27.196	0.888	0.894	0.917	0.690
	R&D2	0.843	23.023				
	R&D3	0.874	31.041				
	R&D4	0.817	21.031				
	R&D5	0.783	21.314				
마케팅	Marketing1	0.895	53.04	0.921	0.925	0.941	0.761
	Marketing2	0.905	49.397				
	Marketing3	0.851	23.902				
	Marketing4	0.883	36.416				
	Marketing5	0.826	18.239				
고용조정	Downsizing1	0.854	16.449	0.722	0.846	0.802	0.511
	Downsizing2	0.568	3.454				
	Downsizing3	0.587	4.149				
	Downsizing4	0.804	11.898				
재무적 성과	Financial performances1	0.902	46.29	0.867	0.879	0.918	0.790
	Financial performances2	0.858	24.743				
	Financial performances3	0.905	51.468				
비재무적 성과	Nonfinancial performances1	0.797	14.575	0.883	0.888	0.915	0.685
	Nonfinancial performances2	0.852	25.682				
	Nonfinancial performances3	0.845	27.571				
	Nonfinancial performances4	0.724	12.031				
	Nonfinancial performances5	0.907	58.296				

<표 4>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1	고용조정	0.715						
2	재무적 성과	-0.095	0.889					
3	재무관리	0.064	0.510	0.719				
4	코로나19 위험인식	0.443	-0.337	0.005	0.836			
5	마케팅	0.132	0.443	0.559	0.038	0.872		
6	비재무적 성과	-0.086	0.626	0.337	-0.269	0.516	0.828	
7	연구개발	0.028	0.315	0.389	-0.107	0.489	0.543	0.831

주: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 값의 제곱근 값

<표 5> 가설검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검증결과
가설 1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관리	0.005	0.120	0.044	0.482	기각
가설 2	코로나19 위험인식 → 연구개발	-0.107	0.091	1.174	0.120	기각
가설 3	코로나19 위험인식 → 마케팅	0.038	0.088	0.428	0.334	기각
가설 4	코로나19 위험인식 → 고용조정	0.443	0.066	6.763	0.000	채택
가설 5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적 성과	-0.337	0.080	4.211	0.000	채택
가설 6	코로나19 위험인식 → 비재무적 성과	-0.269	0.077	3.490	0.000	채택
가설 7	재무관리 → 재무적 성과	0.371	0.085	4.388	0.000	채택
가설 8	연구개발 → 재무적 성과	0.015	0.082	0.187	0.426	기각
가설 9	마케팅 → 재무적 성과	0.240	0.086	2.781	0.003	채택
가설 10	고용조정 → 재무적 성과	0.003	0.088	0.038	0.485	기각
가설 11	재무관리 → 비재무적 성과	0.007	0.094	0.079	0.468	기각
가설 12	연구개발 → 비재무적 성과	0.342	0.085	4.026	0.000	채택
가설 13	마케팅 → 비재무적 성과	0.359	0.089	4.039	0.000	채택
가설 14	고용조정 → 비재무적 성과	-0.042	0.080	0.526	0.300	기각

<표 6>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가설검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검증결과
가설 1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관리	-0.038	0.187	0.204	0.419	기각
가설 2	코로나19 위험인식 → 연구개발	0.006	0.149	0.043	0.483	기각
가설 3	코로나19 위험인식 → 마케팅	-0.104	0.141	0.736	0.231	기각
가설 4	코로나19 위험인식 → 고용조정	0.326	0.224	1.454	0.073	기각
가설 5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적 성과	-0.430	0.107	4.028	0.000	채택
가설 6	코로나19 위험인식 → 비재무적 성과	-0.350	0.100	3.491	0.000	채택
가설 7	재무관리 → 재무적 성과	0.349	0.131	2.666	0.004	채택
가설 8	연구개발 → 재무적 성과	0.099	0.122	0.807	0.210	기각
가설 9	마케팅 → 재무적 성과	0.185	0.139	1.329	0.092	기각
가설 10	고용조정 → 재무적 성과	0.203	0.134	1.518	0.065	기각
가설 11	재무관리 → 비재무적 성과	-0.124	0.144	0.858	0.196	기각
가설 12	연구개발 → 비재무적 성과	0.532	0.114	4.651	0.000	채택
가설 13	마케팅 → 비재무적 성과	0.242	0.136	1.784	0.037	채택
가설 14	고용조정 → 비재무적 성과	0.089	0.126	0.707	0.240	기각

<표 7> 도약기업(3~7년 미만) 가설검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검증결과
가설 1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관리	-0.180	0.272	0.660	0.255	기각
가설 2	코로나19 위험인식 → 연구개발	-0.303	0.158	1.913	0.028	채택
가설 3	코로나19 위험인식 → 마케팅	0.024	0.173	0.136	0.446	기각
가설 4	코로나19 위험인식 → 고용조정	0.461	0.115	4.014	0.000	채택
가설 5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적 성과	-0.500	0.120	4.157	0.000	채택
가설 6	코로나19 위험인식 → 비재무적 성과	-0.268	0.123	2.182	0.015	채택
가설 7	재무관리 → 재무적 성과	0.193	0.179	1.079	0.141	기각
가설 8	연구개발 → 재무적 성과	-0.066	0.128	0.517	0.303	기각
가설 9	마케팅 → 재무적 성과	0.362	0.126	2.875	0.002	채택
가설 10	고용조정 → 재무적 성과	-0.166	0.121	1.374	0.085	기각
가설 11	재무관리 → 비재무적 성과	0.060	0.191	0.312	0.377	기각
가설 12	연구개발 → 비재무적 성과	0.226	0.149	1.514	0.065	기각
가설 13	마케팅 → 비재무적 성과	0.349	0.151	2.308	0.011	채택
가설 14	고용조정 → 비재무적 성과	-0.180	0.168	1.069	0.143	기각

<표 8> 성장기업(7년 이상) 가설검증 결과

구분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검증결과
가설 1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관리	-0.005	0.299	0.017	0.493	기각
가설 2	코로나19 위험인식 → 연구개발	-0.013	0.221	0.060	0.476	기각
가설 3	코로나19 위험인식 → 마케팅	0.210	0.268	0.787	0.216	기각
가설 4	코로나19 위험인식 → 고용조정	0.605	0.263	2.298	0.011	채택
가설 5	코로나19 위험인식 → 재무적 성과	-0.019	0.176	0.110	0.456	기각
가설 6	코로나19 위험인식 → 비재무적 성과	0.150	0.127	1.182	0.119	기각
가설 7	재무관리 → 재무적 성과	0.818	0.183	4.464	0.000	채택
가설 8	연구개발 → 재무적 성과	-0.165	0.188	0.876	0.191	기각
가설 9	마케팅 → 재무적 성과	-0.004	0.186	0.020	0.492	기각
가설 10	고용조정 → 재무적 성과	-0.056	0.180	0.310	0.378	기각
가설 11	재무관리 → 비재무적 성과	0.224	0.178	1.263	0.104	기각
가설 12	연구개발 → 비재무적 성과	0.206	0.163	1.264	0.103	기각
가설 13	마케팅 → 비재무적 성과	0.437	0.139	3.148	0.001	채택
가설 14	고용조정 → 비재무적 성과	-0.103	0.131	0.781	0.218	기각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매개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경영성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매개요인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B=-.27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4개의 매개변인을 모두 통제 한 상태에서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B=-.271, p<.001)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경영성장에 미치는 총효과 및 간접효과에 더하여, 경영활동 4개 매개변인을 통하여 경영성장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간접효과 전체와 각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출된 표본수는 PROCESS macro에서 권장하는 10,000개이며, 95% 신뢰구간(CI) 내에서 간접효과의 상한값(boot UL)과 하한값(boot LL)을 참조하여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1>에 제시된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B=-.004, 95% CI=-.103~.102, CI에 0 포함) 유의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재무관리(B=.008, 95% CI=-.024~.046), 연구개발(B=-.017, 95% CI=-.057~.013), 마케팅(B=.011, 95% CI=-.033~.064), 고용조정(B=-.006, 95% CI=-.055~.041)의 간접효과는 CI에 0를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영활동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Hayes PROCESS의 병렬다중매개효과분석 결과

직접효과	B	SE	t-값	
코로나19 위험인식(X) → 경영성과(Y)	-0.271	0.053	-5.151***	
코로나19 위험인식(X) →	재무관리(M1)	0.041	0.062	0.658
	연구개발(M2)	-0.093	0.072	-1.288
	마케팅(M3)	0.034	0.070	0.487
	고용조정(M4)	0.337	0.068	4.963***
재무관리(M1) →	경영성과(Y)	0.192	0.077	2.487**
	연구개발(M2)	0.184	0.063	2.936**
	마케팅(M3)	0.319	0.072	4.404***
	고용조정(M4)	-0.016	0.058	-2.93

*p<.05, **p<.01, ***p<.001

<표 10> 총효과 및 직접효과

구분	B	SE	t-값
총효과	-0.276	0.062	-4.467***
직접효과	-0.271	0.053	-5.151***
모형요약 R ² =0.11, F=19.950***			

*p<.05, **p<.01, ***p<.001

<표 11> 간접효과 경로와 부트스트랩 분석결과

구분	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코로나19위험인식(X) → 재무관리(M1) → 경영성과(Y)	.008	.017	-.024	.046
코로나19위험인식(X) → 연구개발(M2) → 경영성과(Y)	-.017	.018	-.057	.013
코로나19위험인식(X) → 마케팅(M3) → 경영성과(Y)	.011	.024	-.033	.064
코로나19위험인식(X) → 고용조정(M4) → 경영성과(Y)	-.006	.024	-.055	.041
총 간접효과	-.004	.053	-.103	.102

V. 결론

5.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협인식이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협인식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중 고용조정에만 영향을 미치고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재산에 즉시 영향을 끼치며(Sitijak et al., 2023),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이다. 연구개발은 혁신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원으로(Somaya et al., 2007),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Klette & Griliches, 2000) 위기 상황과 상관없이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또한, 마케팅은 기업의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불황, 위기 상황 등에서의 마케팅 전략이 쏟아져나올 만큼 상황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김준석, 2003; 배소희·이세진, 2014; Nikbin et al., 2022). 이러한 관점에서 세 경영활동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기상황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조정은 다르다. 고용조정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Freeman & Cameron, 1993) 다른 세 경영활동에 비해 코로나19 시기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조정이 기업의 성과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의 관점에서(De Meuse & Dai, 2013) 코로나19 시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이러한 고용조정 활동은 상당히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로나19 위협인식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인식이 낮을수록 창업기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Keh et al., 2002). 이때 창업가는 창업기회를 실현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활동을 시도할 것이다. 반면,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창업기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것이고, 창업가의 경영활동도 최소가 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위협인식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원인을 설명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코로나19 위협을 높게 인식하여 경영활동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최소화하였고, 이는 결국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Wijaya & Rahmayanti(2023)의 연구에서 코로나19 위협인식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대상이 창업가나 대표가 아닌 관리자라는 것만 제외하면 코로나19 위협인식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는 동일하다.

셋째, 경영활동 중 재무관리와 마케팅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과 고용조정 활동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재무관리는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키고(Mondy et al., 1999), 예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Sitijak et al., 2023). 재무관리가 곧 재무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과창출에 있어 마케팅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케팅 없이는 제품개발이나 가격책정, 유통채널, 판매 등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성과창출을 위해 마케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마케팅이 재무적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이다(Aaker & Jacobson, 1994). 이러한 이유로 재무관리와 마케팅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구개발은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Schumpeter(1950)는 위기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기업이 미래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설문을 한 기점에서 과거 1년간의 단기적 성과만 고려하였기에,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연구개발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한편, 고용조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다르다. 일부는 조직의 생산을 높이기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Cameron et al., 1991; Hendricks, 1992; Neinstedt, 1989), 일부는 장단기적 기간에 따라 의미하지 않거나 유의미한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홍민기, 2013; De Meuse & Dai, 2013). 또 다른 일부는 제품 품질이나 노동생산성, 수익성, 조직몰입, 이직률,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한다(홍민기, 2013; Mellahi & Wilkinson, 2010). 코로나19가 2019년 말에 처음 확인되었고, 본 연구는 2020년 말과 2021년 초까지의 성과를 연구한 것이므로 코로나19 시기 고용조정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거나 일부는 고용조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시기 고용조정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중 연구개발과 마케팅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무관리와 고용조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은 환경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변화가 예측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에 더 유용한 지식기반 자원을 창출하고(Heeley et al., 2006), 기업의 지식자산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Somaya et al., 2007). 이러한 지식자산은 지식재산권의 보유나 신제품, 서비스 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고객 증가 등 기업의 전반적인 비재무적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케팅은 재무적 성과는 물론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자산가치와 인지도, 애호도, 제품의 품질 등 비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Rao & Monroe, 1989; Bendixen et al., 2004; Kuhn et al., 2008; Keller, 1993; Cretu & Brodie, 2007).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연구개발과 마케팅이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이러한 연구를 지지한다. 한편, 코로나19 시기 재무관리는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관리란 조달된 자금을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McMahon et al., 1993). 따라서 재무관리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보다는 마케팅이나 연구개발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재무관리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다섯째,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도약기업(3~7년 미만), 성장기업(7년 이상)별로 가설검증 결과는 일부 다르게 나타났으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초기창업기업과 도약기업에서는 기존 가설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장기업에서는 코로나19 위험인식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창업기업에 가까울수록 코로나19 위험을 높게 인식하지만, 성장기업에 가까울수록 기업 내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다.

마케팅은 유일하게 모든 유형에서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립기간에 상관없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모두 마케팅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며, 동시에 마케팅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증명한다. 흥미롭게도 연구개발은 3년 미만인 초기창업기업에서만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창업기업에 가까울수록 연구개발에 소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초기창업기업일수록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경영활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위험성향이나 감수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위험인식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조사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본 연구는 관련 분야의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실무자, 정책개발자들에게도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높은 위험인식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직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변종 또는 유사한 바이러스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경영활동이나 내부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 초기창업기업과 도약기업에서 이러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초기에는 해고 등의 수량적 고용조정보다는 자금조달과 관련한 재무관리, 사회재난에 대비한 기업 내외부 연구개발, 비대면에 최적화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초기창업일수록 더욱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초기창업기업은 설립한지 오래되지 않아 경영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재무관리, 연구개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활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자원을 공유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재난이 확대되었을 때가 아니라 발생 초기부터 창업보육센터 초기창업기업, 도약기업, 성장기업에 적합한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재난이 더 심각해질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시기에 국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인식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성과와 관련하여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음에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성별과 나이, 학력, 창업경험, 부모직업 등은 통제하였으나 그 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험인식이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인식과 경영성과 사이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경영활동을 병렬관계로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각 경영활동이 선후관계로 연구될 수 있음을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위해 표본을 초기창업, 도약, 성장 등의 세 가지 기간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기간별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수를 바탕으로 기간별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의미 있는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 모형과 실증적 분석 결과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험인식을 조절변수로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고용노동부(1997).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실태*. Retrieved (2023.07.21) from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2021).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고용에 미친 영향*. Retrieved (2023.10.17.) from file:///C:/Users/MJ/Downloads/%EC%BD%94%EB%A1%9C%EB%82%9819%20%EA%B0%90%EC%97%BC%20%ED%99%95%EC%82%B0%EC%9D%B4%20%EA%B3%A0%EC%9A%A9%EC%97%90%20%EB%AF%B8%EC%B9%9C%20%EC%98%81%ED%96%A5(%EC%9E%A5%EC%9D%B8%EC%84%B1%20%EC%99%B8)%20(2).pdf.

김대엽(2017). *창업가의 인지편향과 지각된 위험이 창업기회평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성일·이우진(201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CEO의 기업가정신 및 시장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지원 서비스 활용정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5), 1-13.

김승기(2020). *ICT활용역량이 실시간 기업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김용범·윤태훈·손애리(2021). 한국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위험인식,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 의도와 실천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1), 25-36.

김준석(2003). 불황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시장 개척 마케팅 전략. *마케팅*, 37(8), 31-34.

김지미·이선혜·이은영(2021).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 위협인식과 개인방역 수칙.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8(6), 596-603.

김희준(2017). 창업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연구: 중간회수시장 구축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11(2), 112-135.

민지선·최성락(2014). 위기관리에 대한 홍보 전략 사례연구. *경영관리연구*, 7(2), 75-99.

박근환·배지원·유승호(2019). 기업의 위기관리 유형에 따른 성과 분석: 고객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생산관리학회지*, 30(3), 227-250.

박용필(2015). *R&D 역량, 생산역량, 시장지향성, 기업가정신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박해근(2018). *창업초기기업 기술사업화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자 기술능력 및 마케팅능력을 조절효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배소희·이세진(2014). 기업 위기 상황에서 사회공헌활동 유형에 따른 광고 효과 연구. *광고학연구*, 25(2), 185-208.

서문식·안진우·노태석(2012). 사전적, 기능적 고객참여 행동이 중업원 반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1(4), 867-895.

손애리·한숙정(2020). 언어네트워크를 이용한 일반인과 간호사의 코로나19 위협인식과 예방행동에 대한 이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보건과 사회과학*, 55(1), 5-30.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이성화·조근태(2012). R&D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사업화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20(1), 263-294.

장성희·김희자·반성식(2014). 여성창업가 특성, 조직문화가 기업가정신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28(1), 187-215.

차용진(2006). 위협인식 연구: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0(4), 181-201.

차용진(2014). 지역위협인식 비교와 위험분석의 정책적 함의: 대구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1), 29-48.

한국마케팅학회 편집부(2002). 한국마케팅학회의 마케팅 정의. *마케팅연구*, 17(2), 5-6.

홍민기(2013). 대규모 고용조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평론*, 41, 129-169.

Aaker, D. A., & Jacobson, R.(1994). The Financial Information Content of Perceived Qua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1(2), 191-201.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2017). *Definition of Marketing*, Retrieved (2023.08.03.) from <https://www.ama.org/the-definition-of-marketing-what-is-marketing/>.

Bae, S. H., & Lee, S. J.(2014). The Effect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n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25(2), 185-208.

Barney, J. B.(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99-120.

Bendixen, M., Bukasa, K. A., & Abratt, R.(2004). Brand Equity in the Business-to-business Market.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3(5), 371-380.

Boermans, M., & Willebrands, D.(2017). *Entrepreneurship, Risk Perception and Firm Performance(17-04)*, Kriekenpitplein: Utrecht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Cameron, K. S., Freeman, S. J., & Mishra, A. K.(1991). Best Practices in White-collar Downsizing: Managing Contradiction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5(3), 57-73.

Cha, Y. J.(2006). Risk Perception: A Review of Reliability and Validity in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Paradigm.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10(4), 181-201.

Cha, Y. J.(2014). A Comparison of Regional Risk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isk Analysis: Focusing on Daegu and Mokpo Region.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8(1), 29-48.

Chew, J., Haase, A. M., & Carpenter, J.(2017). Individual and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Young People with Epilepsy: A Multiple Mediation Analysis. *Epilepsy & Behavior*, 66, 19-26.

Cleeren, K., Van Heerde, H. J., & Dekimpe, M. G.(2013). Rising from the Ashes: How Brands and Categories Can Overcome Product-harm Crises. *Journal of Marketing*, 77(2), 58-77.

Conchar, M. P., Crask, M. R., & Zinkhan, G. M.(2005). Market Valuation Models of the Effect of Advertising and Promotional Spending: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3(4), 445-460.

Coombs, W. T.(1999). *On 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CA: Sage.

Coombs, W. T.(2004). Impact of Past Crisis on Current Crisis

- Communication: Insight from 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41(3), 265-289.
- Cotterman, W., & Senn, J.(1992).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retu, A. E., & Brodie, R. J.(2007). The Influence of Brand Image and Company Reputation Where Manufacturers Market to Small Firms: A Customer Value Perspectiv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6(2), 230-240.
- Dana, L.(1995). Entrepreneurship in a Remote Sub-arctic Commun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1), 57-72.
- Dana, L. P., & Dana, T. E.(2005). Expanding the Scope of Methodologies Used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1), 79-88.
- De Meuse, K. P., & Dai, G.(2013). Organizational Downsizing: Its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Over Time.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25(4) 324-344.
- Doern, R., Williams, N., & Vorley, T.(2019). Special Issue on Entrepreneurship and Crises: Business as Usual? An Introduction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31(5-6), 400-412.
- Editorial Board(2002). Definition of Marketing by the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Marketing*, 17(2), 5-6.
- Espahbodi, R., John, T. A., & Vasudevan, G.(2000). The Effects of Downsizing on Operating Performance.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15(2), 107-126.
- Fornell, C., & Bookstein, F. L.(1982).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LISREL and PLS Applied to Consumer Exit-Voic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4), 440-452.
-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eel, M. S.(2000). Strategy and Structure in Innovative Manufacturing SMEs: The Case of an English Region. *Small Business Economics*, 15(1), 27-45.
- Freeman, S. J., & Cameron, K. S.(1993). Organizational Downsizing: A Convergence and Reorientation Framework. *Organization Science*, 4(1), 10-29.
- Gibus, P., Vermeulen, P., & De Jong, J.(2009). Strategic Decision Making in Small Firms: A Taxonomy of Small Business Ow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7(1), 74-91.
- Graham, S. J., Merges, R. P., Samuelson, P., & Sichelman, T.(2009).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and the Patent System: Results of the 2008 Berkeley Patent Survey.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4(4), 1255-1327.
- Hayes, A. F.(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eeley, M. B., King, D. R., & Covin, J. G.(2006). Effects of Firm R&D Investment and Environment on Acquisition Likelihood.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3(7), 1513-1535.
- Hendricks, C. F.(1992). *The Rightsizing Remedy*. Homewood, IL: Irwin.
- Hong, M. K.(2013). The Effects of Employment Downsizing on Firm's Performance.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 41, 129-169.
- Hult, G. T. M., Hurley, R. F., & Knight, G. A.(2004). Innovativeness: Its Antecedents and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3(5), 429-438.
- Jang, S. H., Kim, H. J., & Bahn, S. S.(2014). The Effects of Women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and Entrepreneurship on Business Performance. *Productivity Review*, 28(1), 187-215.
- Jindrichovska, I.(2013). Financial Management in SMEs. *European Research Studies*, 16(4), 79-95.
- Kainulainen, S.(2014).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Dordrecht: Springer.
- Kaplan, R., & Norton, D.(1996).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as a Strategic Management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29(1), 75-85.
- Karadag, H.(2015). Financial Management Challenge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 Strategic Management Approach. *Emerging Markets Journal*, 5(1), 26-40.
- Kazanjian, R. K.(1988). Relation of Dominant Problems to Stages of Growth in Technology-based New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2), 257-279.
- Keh, H. T., Der Foo, M., & Lim, B. C.(2002). Opportunity Evaluation under Risky Conditions: The Cognitive Processes of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125-148.
- Keller, K. L.(1993). Conceptualizing, Measuring, and Managing Customer-based Brand Equity. *Journal of Marketing*, 57(1), 1-22.
- Kennedy, C., & Thirlwall, A. P.(1972). Surveys in Applied Economics: Technical Progress. *The Economic Journal*, 82(325), 11-72.
- Kim, D. Y.(2017). *The effect of Cognitive Biases and Perceived Risks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im, H. J.(2017). Legal Research on the Corporate Finance of Start-ups: Focused on Successful Exit Strategy. *Ajou Law Review*, 11(2), 112-135.
- Kim, J. M., Lee, S. H., & Lee, E. Y.(2021). COVID-19 Risk Perception and Precautionary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8(6), 596-603.
- Kim, J. S.(2003). Marketing Strategy for Expanding into Target Markets as an Opportunity Amidst Economic Downturn. *Marketing*, 37(8), 31-34.
- Kim, S. I., & Lee, W. J.(2016). Impacts of Entrepreneurship and Market Orientation of Business Incubator CEO'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 of utilization level of BI Supporting Servi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5), 1-13.
- Kim, S. K.(2020). *Empirical Approach t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se of ICT and RTE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Kim, Y. B., Yoon, T. H., & Sohn, A. R.(2021).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8(1), 25-36.
- Klette, T. J., & Griliches, Z.(2000). Empirical Patterns of Firm Growth and R&D Investment: A Quality Ladder Model Interpretation. *The Economic Journal*, 110(463), 363-387.
- Kotler, P., & Keller, K. L.(2006). *Marketing Manage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 Koyuncugil, A. S., & Ozgulbas, N.(2006). Is There a Specific Measure for 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The Business Review Cambridge*, 5(2), 314-319.
- Kraus, S., Rigtering, J., Hughes, M., & Hosman, V.(2012).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A Quantitative Study from the Netherlands.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6(2), 161-182.
- Kuhn, K. A. L., Alpert, F., & Pope, N. K. L.(2008). An Application of Keller's Brand Equity Model in a B2B Context. *Qualitative Market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11(1), 40-58.
- Lee, S. H., & Cho, K. T.(2012). The Study on the Effect of R&D Investment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20(1), 263-294.
- Lome, O., Heggeseth, A. G., & Moen, Ø.(2016). The Effect of R&D on Performance: Do R&D-intensive Firms Handle a Financial Crisis Better?. *The Journal of High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27(1), 65-77.
- Long, C.(2002). Patent Signals.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9(2), 625-679.
- Lumpkin, G., & Dess,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López, S. A., Contreras Soto, R., & Espinosa Mosqueda, R.(2012). The Impact of Financial Decisions and Strategy on Small Business Competitiveness. *Glob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2), 93-103.
- McMahon, R., Holmes, S., Hutchinson, P., & Forsaith, D.(1993). *Small Enterprise Financial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Sydney: Harcourt Brace.
- Mellahi, K., & Wilkinson, A.(2010). Slash and Burn or Nip and Tuck? Downsizing, Innovation and Human Resourc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1(13), 2291-2305.
- Meredith, G. G.(1986). *Financial Management of the Small Enterprise*. Sydney: McGraw-Hill.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1997). *The Employment Adjustment Situation in South Korean Companies*, Retrieved (2023.07.21) from <https://www.moel.go.kr/index.do>.
-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Employment*, Retrieved (2023.10.17.) from [file:///C:/Users/MJ/Downloads/%EC%BD%94%EB%A1%9C%EB%82%9819%20%EA%B0%90%EC%97%BC%20%ED%99%95%EC%82%B0%EC%9D%B4%20%EA%B3%A0%EC%9A%A9%EC%97%90%20%EB%AF%B8%EC%B9%9C%20%EC%98%81%ED%96%A5\(%EC%9E%A5%EC%9D%B8%EC%84%B1%20%EC%99%B8\)%20\(2\).pdf](file:///C:/Users/MJ/Downloads/%EC%BD%94%EB%A1%9C%EB%82%9819%20%EA%B0%90%EC%97%BC%20%ED%99%95%EC%82%B0%EC%9D%B4%20%EA%B3%A0%EC%9A%A9%EC%97%90%20%EB%AF%B8%EC%B9%9C%20%EC%98%81%ED%96%A5(%EC%9E%A5%EC%9D%B8%EC%84%B1%20%EC%99%B8)%20(2).pdf)
- Min, J. S., & Choi, S. R.(2014). Case Study on Communications Strategy for Crisis Management.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Research*, 7(2), 75-99.
- Mitroff, I. I., & Anagnos, G.(2001). *Managing Crisis before They Happen: What Every Executive and Manager Needs to Know about Crisis Management*. New York: AMACOM.
- Mondy, W., Noe, M., & Premeaux, R.(1999). *Human Resource Management*. London: Prentice-Hall International.
- Neinstedt, P. R.(1989). Effectively Downsizing Management Structures. *Human Resource Planning*, 12(2), 155-164.
- Nikbin, D., Iranmanesh, M., Ghobakhloo, M., & Foroughi, B.(2022). Marketing Mix Strategies during and after COVID-19 Pandemic and Recession: A Systematic Review.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14(4), 405-420.
- Palich, L. E., & Bagby, D. R.(1995). Using Cognitive Theory to Explain Entrepreneurial Risk-taking: Challenging Conventional Wisdo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6), 425-438.
- Park, G. W., Bae, J. W., & Yoo, S. H.(2019). Effect of the Type of Risk Management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ed on Customer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n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Society*, 30(3), 227-250.
- Park, H. G.(2018).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f Early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 on Moderating Effect of Technology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of the Founder*.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Park, Y. P.(2015). *Research on the Effects of R&D Capability, Manufacturing Capability,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Technology Innov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Randerson, K., Degeorge, J. M., & Fayolle, A.(2016).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How Do Cognitive Styles and Logics of Action Fit in?.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7(1), 19-39.
- Rao, A. R., & Monroe, K. B.(1989). The Effect of Price, Brand Name, and Store Name on Buyers' Perceptions of Product Quality: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6(3), 351-357.
- Schumpeter, J. A.(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 Democrac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 Sitijak, C., Johanna, A., Avinash, B., & Bevoor, B.(2023). Financial Management: A System of Relations for Optimizing Enterprise Finances: A Review. *Journal Markcount Finance*, 1(3), 160-170.
- Sitkin, S., & Pablo, A.(1992). Reconceptualizing the Determinants of Risk Behavior. *The Academy Management Review*, 17(1), 9-38.
- Sitkin, S., & Weingart, L.(1995). Determinants of Risky Decision-making Behavior: A Test of the Mediating Role of Risk Perceptions and Propensity.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6), 1573-1592.
- Slater, S. F., & Olson, E. M.(2001). Marketing's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Business Strategy: An Empirical Analy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11), 1055-1067.
- Slovic, P.(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and Sterling, VA: Earthscan.
- Smallbone, D., Deakins, D., Battisti, M., & Kitching, J.(2012). Small Business Responses to a Major Economic Downturn: Empirical Perspectives from New Zealand and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30(7), 754-777.
- Sohn, A. R., & Han, S. J.(2020). Understanding Risk-perception of COVID-19 and Preventive Behaviors between Public and Nurses Based on a Semantic Network Analysis: Based on Risk Communication. *Health & Social Science*, 55(1), 5-30.
- Somaya, D., Williamson, I. O., & Zhang, X.(2007). Combining Patent Law Expertise with R&D for Patenting Performance. *Organization Science*, 18(6), 922-937.
- Stock, G. N., Greis, N. P., & Kasarda, J. D.(2000). Enterprise Logistics and Supply Chain Structure: The Role of Fit.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18(5), 531-547.
- Strandskov, J.(2006). Sources of Competitive Advantages and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7(3), 119-129.
- Suh, M. S., Ahn, J. W., & Rho, T. S.(2012). The Effect of the Prior and Functional Participation on Employee Response: Moderating Effect of the Dependence on Service Providers and the Prior Participation. *Korean Management Review*, 41(4), 867-895.
- Tanriverdi, H.(2005). Information Technology Relatedness, Knowledge Management Capability, and Performance of Multi Business Firms. *MIS Quarterly*, 29(2), 311-334.
- Vinzi, V., Chin, W. W., Henseler, J., & Wang, H.(2010).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Berlin: Springer.
- Vorhies, D. W., & Morgan, N. A.(2005). Benchmarking Marketing Capabilities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rketing*, 69(1), 80-94.
- Wijaya, N., & Rahmayanti, P.(2023). The Role of Innovation Capability in Mediation of COVID-19 Risk Perception and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to Business Performance. *Uncertain Supply Chain Management*, 11(1), 227-236.
- Willebrands, D., Lammers, J., & Hartog, J.(2012). A Successful Businessman is not a Gambler: Risk Attitude and Business Performance among Small Enterprises in Nigeria.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2), 342-354.
- Williams, T. A., Gruber, D. A., Sutcliffe, K. M., Shepherd, D. A., & Zhao, E. Y.(2017). Organizational Response to Adversity: Fusing Crisis Management and Resilience Research Streams.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1(2), 733-769.
- Woo, J. P.(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 Seoul: Hannarae Publishing Co.
- Yam, R. C., Guan, J. C., Pun, K. F., & Tang, E. P.(2004). An Aud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Chinese firms: Some Empirical Findings in Beijing, China. *Research Policy*, 33(8), 1123-1140.
- Yu, G. C., & Park, J. S.(2006). The Effect of Downsizing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Employee Productivity of Korean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7(3), 230-250.

The Impact of COVID-19 Risk Perception on the Operational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Incubator Tenant Companies

Min-Jung Choi*
Il-Han Lee**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OVID-19 risk perception on the operational activities and performance of incubator tenant compani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VID-19 outbreak. The primary variables considered for the operational activities of incubator tenant companies include financial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ing, and downsizing.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re the key variables for business performance.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COVID-19 risk percep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ly on downsizing, but i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financial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r marketing. Additionally, COVID-19 risk perceptio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management and marketing significantly influence financial performance, whil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downsizing do not seem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Conversely,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marketing activities, significantly impact non-financial performance, while financial management and downsizing lack a significant influence on non-financial performance. Finally, when examining incubator tenant companies categorized into early-stage, leap-stage, and growth-stage companies, it was observed that only marketing activities have a common and significant impa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cross all three types of companies.

KeyWords: COVID-19, Risk Perception, Business Activities, Financial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Marketing, Downsizing, Business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 First Author, Director, Global SDG Impact Association, mjchoi1003@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lih2114@cau.ac.kr